기자들의 눈
ijournalist.co.kr
2023년 6월 15일(목요일)
일간 인터넷판 제105호 TEL 032-433-8081

송도테마파크, '방치보단 조속한 개발' 희망

경제와 상권 부흥의 필요성 제기
부정적 여론 향해 발전 응원 요구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부영주택

인천 송도발전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송도테마파크 개발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시민들은 조장을 그만하라는 지적과 함께 부영 측이 당시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오염토가 매립된 사실을 알고는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송도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리를 건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했지만, 인근 송도 개발은 지지부진하여 도시의 균형이 깨지면서 덩그러니 존치하는 부영 부지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환경보호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현 상황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저해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과정부터 불량토 매립은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매립업체들이 오염토를 매립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참담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부영 측이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 반발과 언론 및 행정은 원칙이란 틀에 매몰되어 개발에 대해 발목을 더 잡았다. 그리고 흘러가는 현실은 상권의 지각변동을 정지시키고 있다.

A 인천시민은 누가 오염토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부지를 매입하겠냐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석했다. 개발은 해야 하고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 발전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송도지역 개발은 인천의 카타고리가 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개발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발전을 저해시키는 언론의 지적 등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시와 부영을 대상으로 언론의 논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영은 사업에 대한 기존 인가조건을 완화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 합의, 부영은 테마파크 착공 대신 토양오염 정화 시작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 된 셈이라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 내용에 관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최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년 부영이 인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계속 정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5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근 부영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인가조건 완화, 테마파크·도시개발 부지교환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 자리는 부영 측의 여러 가지 업무적 건의를 수렴하는 자리였다. 부영 측은 인가 조건 완화, 도시개발 부지교환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인천시는 "기존에 협의된 사항인 맹꽁이 이전 및 토양오염 정화설계를 먼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는 부영 측과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본격적인 업무협약(MOU) 실무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민 일각은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개발은 현실이 됐다. 정화설계가 우선인 것도 사실이고 환경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자연 스스로 정화의 치유 기능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도 주변 환경이 달라진 만큼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인근 무허가 불법업체 화재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화의 노력은 부영이 가지고 있는 부지 개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들이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개발하라는 것은 피부로 닫는 여론이다. 일부 악의적 여론 조장 판단에 치우칠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연수구 행정관할구역의 부지가 향후 행정·정치권 등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인천 동구의회, 집행부 상대로 구정 질문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원태근 부의장, 김종호 의원, 윤재실 의원, 오수연 의원, 장수진 의원, 이영복 의원, 최훈 의원. /인천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원태근 부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이 구민 복리증진 및 동구 지역발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신청사 개소식

민원인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도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약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일 영종관리과 신청사 사무실을 최근 운서역 공영주차장(5층) 신청사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진용 청장을 비롯하여 신성영 시의원,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한창한 구의원, 김광호 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운서역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5층)에 연면적 392㎡ 규모로 새 청사를 건립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영종관리과는 영종 하늘문화센터에 위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영종지역(54.3㎢)의 부동산, 환경, 건축, 공원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방문이 불편했다.

인천경제청은 하늘문화센터내 영종관리과 이전 후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어학강좌, 취미생활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영종관리과 신청사 개소를 계기로 영종국제도시의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8월부터 '인천형 천원 아침밥' 지원

인천광역시는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7개 대학에 오는 8월, 2학기부터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밥값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7개 대학에 한끼 당 1000원의 현금과 함께 강화 쌀 총 8톤도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미순 기자 0405mms@naver.com